



SK에너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발표

SK인천정유와 2008년 2월1일부로 합병

SK에너지는 지난 2007년 12월18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년 조직개편안과 임원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신현철 대표 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CIC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임원인사가 이루어졌다. SK에너지는 회사의 장기 비전 달성을 가속화하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별/기능별 부문조직을 사업 중심의 CIC 조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SK에너지는 2008년 1월1일부로 신현철 부회장과 각 CIC 사장 등 1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SK에너지는 이번 임원인사부터 상무-전무 식의 직위별 호칭을 없애고, 직책 중심의 임원인사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성원에 대한 인력관리 역시 직무 중심의 제도로 바뀐다.

또한 SK에너지는 이날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SK인천정유와의 합병 안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대신하여 최종 의결하였으며, 2008년 2월 1일부로 합병을 완료하였다.

최태원 회장, 중국 우한시 에틸렌 공장 착공식 참석



SK에너지의 중국 내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SK에너지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07년 12월18일 열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에틸렌 공장 착공식에 합작 투자 파트너로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중국 최대 정유사 시노펙이 연산 80만톤 규모의 에틸렌 공장을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SK에너지는 최태원 회장의 이번 착공식 참석으로 시노펙과의 본격적인 JV(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가 중국 사업 추진 이후 가

장 큰 성과로, 수년간 중국 진출에 공을 들인 최태원회장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중국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싱가포르에 세계 일류수준 기술 전수



SK에너지가 싱가포르 JAC(Jurong Aromatics Corporation Pte. Ltd.)사와 O&M(Operation & Maintenance,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07년 12월13일 밝혔다.

계약식은 지난 12월13일 싱가포르 리츠 칼튼호텔에서 거행되었으며, SK에너지 생산부문장 박상훈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SK에너지 생산기술본부장 강한식 상무와 JAC사의 Edwin Seow 상무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JAC사는 현재 싱가포르 주룽(Jurong)섬 석유화학단지 내에 대규모 아로마틱(방향족)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에는 파라자일렌, 벤젠, 올소자일렌 등의 아로마틱 제품과 기타 석유화학 제품이 연간 약1백만 톤 규모로 생산된다.

SK에너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 진출

SK에너지가 Global 파트너와 함께 해외 텔레매틱스 시장 진출에 나선다.

SK에너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가전박람회 'CES' 에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체인 '데스티네이터' (Destinator Technologies)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양사는 SK에너지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기술과 데스티네이터의 단말기 기반 내비게이션 기술을 결합, 휴대폰 및 내비게이션 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유+신상품 체험+경품' 1석 3조, 엔크린 포춘쿠키 이벤트 실시



'SK에너지에서 주유하면 신상품 체험과 경품을 덩어로 받는다' SK에너지가 4,700여 SK주유소 및 충전소의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 무료체험 서비스 '엔크린 포춘쿠키' open 기념 이벤트를 지난 12월 20일~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엔크린 포춘쿠키는 SK에너지와 제휴한 업체들이 자사의 신제품 테스트를 SK에 의뢰하면 응모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신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은 해당 상품을 사용한 후 평가하는 서비스로 엔

크린 홈페이지(www.enkclean.com)을 통해 실시하였다.

SK에너지는 이 서비스를 위해 LG생활건강, 삼성전자, 도루코 등 약 30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으며 고객들은 이들 회사의 생활용품, 캠코더, 면도기 등 40개 품목 2,400여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SK에너지, 행복나누미 행사 진행



행복나누미의 계절을 맞아 지난 2007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SK에너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행복나누미 행사를 진행하였다.

1박 2일로 진행된 금번행사는 시설종사자들의 한해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행복선물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2일차에는 직접 만든 선물들을 가지고 쪽방촌, 노인복지관, 장애인 학교와 같은 소외시설을 방문하여 전달행사를 가졌다. 또한 직접 제작한 행복나눔트리는 코엑스 광장에 기증하였다.

2008 고객감동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호워스총정권선텐팅이 주관한 '2008 고객감동 경영대상'에서 SK에너지가 2년 연속 제조업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월 11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SK에너지 외에도 SK텔레콤이 서비스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삼성물산, 우리은행 등 고객감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22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2008년 GS칼텍스 사무식



GS칼텍스는 지난 1월 2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식을 거행했다.

허동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창사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No.2 HOU를 조기에 상업 가동하고,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방향족 시설을 갖추는 등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수출물량 증대로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22조 원 달성과 영업이익 1조원을 실현했지만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며 올해 경영목표를 '획기적 가치창출과 '무재해 사업장 실현'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행동지침으로 '주인 의식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한·오만 친선협회 창립총회



한·오만 친선협회가 지난 11월 12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허동수 회장 등 한국측 인사 10명과 무사 함단 알 타이 주한 오만 대사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10개 국가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허동수 회장이 협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병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박신웅·이상민 前오만 주재 한국대사 등이 이사진으로 선임됐다.

한·오만 친선협회는 앞으로 양국간의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중동산유국인 오만과

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가스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오만 진출을 활성화함은 물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S칼텍스, 1일 정제능력 77만 배럴로 증가

GS칼텍스의 1일 정제능력이 기존 722,500배럴에서 47,500배럴 늘어난 770,000배럴로 증가됐다. 상압잔사유 이송펌프 모터 교체 등 시설 개선과 공장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통해 No.4 원유정제시설(CDU) 등의 1일 정제능력을 안정적으로 47,500배럴 늘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GS칼텍스는 현재 원유를 종류해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4개의 원유정제시설(CDU)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정제능력 증가로 총 77만 배럴의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정제능력 향상을 통해 GS칼텍스는 상압잔사유를 추가 생산함으로써 지난 10월 상업가동에 들어간 제2중질유분해시설(No.2 HOU) 및 방향족 제품 생산능력 확장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 윤활기유 첫 수출



GS칼텍스는 지난 11월 14일, 고품질 윤활기유를 중동 지역으로 첫 수출했다. 이날 여수시 적량동 GS칼텍스 제2제품부두에서 출하된 윤활기유는 총 9,000톤으로 이중 7,000톤은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2,000톤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됐다.

이로써 GS칼텍스는 기존 윤활유 제품 생산 외에 윤활기유까지 생산함으로써 윤활유-윤활기유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기존 윤활유 제조를 위해 윤활기유를 외부에서 구매했으나, 지난달 말 하루 1만 6천 배럴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본격 가동됨에 따라 윤활기유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GS칼텍스, 청평연구소 준공식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12월 17일 가평군 설악면 사릉리 소재 청평연구소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경영위원 및 회사 주요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기념수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우리 회사의 Sustainable Profit Growth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애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판교수련소 대체시설로 건설된 청평연구소는 지난 2005년 설계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준공됐으며 약 45000㎡의 부지에 비전관, 지원관, 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S칼텍스, 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제3차 GS칼텍스재단 정기 이사회가 지난 12월 4일 본사에서 열렸다. 이사장인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 제2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07년 사업추진 경과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 승인 등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지난 2006년 8월 1일 출범한 GS칼텍스재단은 2015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1천 억 원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소원성취 릴레이' 전개



GS칼텍스는 지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연말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공장을 비롯한 회사 지방사업장의 추천을 받아 전국 7개 지역 19개 복지기관을 선정, 해당기관의 어린이, 노인, 장애우들의 가장 이르고 싶은 소원을 사전에 들어보고 성취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난방유와 연탄 전달, 놀이공원 나들이, 영화관람, 외식과 선물, 파티를 비롯한 온천여행, 김장김치 담그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S-OIL, 2007년 영업이익 1조883억원, 17.6% 증가

S-OIL은 지난 1월 23일 2007년도에 매출액 15조2,188억원, 영업이익 1조883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6%, 17.6% 증가한 것으로 S-OIL은 2004년에 이어 3년만에 다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 세전이익은 이자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로 인한 환차손으로 전년대비 소폭(0.8%) 감소한 1조467억원을 기록했다. S-OIL 측은 2007년 대대적인 정기보수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국제석유시장에서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제품 가격상승으로 매출액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부가가치 고도화시설을 활용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석유제품의 판매 비중확대와 수익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7.6% 증가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S-OIL, 주유소 품질보증제도 '믿음 가득 주유소' 시행



S-OIL은 지난 1월 3일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관리해주고 제품결함으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시 배상을 책임지는 “믿음가득 주유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OIL 측은 전국의 계열주유소 1,000여곳과 협약을 맺고 올

해부터 이 같은 주유소 품질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S-OIL은 “믿음가득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지역별로 품질매니저를 두고 수시로 주유소를 방문하여 수분검사, 주유기 정량검사 등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S-OIL, 2007 영웅소방관 포상

S-OIL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에서 황정연 소방방재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하고 경광속 소방위(서울중랑소방서) 등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9명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일반시민과 소방방재청의 추천을 거쳐 최고영웅소방관에 선정된 경광속 소방위와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김재관 소방교(경기안양소방서), 전기백 소방장(중앙119구조대), 신재근 소방장(인천중부소방서), 조양현 소방위(전남보성소방서), 양순주 소방위(전북남원소방서), 홍인호 소방장(울산남부소방서), 김기철 소방교(대전서부소방서), 박상태 소방교(경남거창소방서)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포상금으로 전달했다.

S-OIL, 아동시설과 결손가정에 난방비 등 지원

S-OIL은 지난 12월 20일 수도권의 아동시설(그룹홈)과 저소득 결손가정에 1억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S-OIL 사회봉사단(단장 : 김동철 수석부사장) 40여명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행복한홈스쿨'에서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사장 : 윤남중) 및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회장 : 김노보)과 함께 「S-OIL 노란산타와 함께하는「행복한 겨울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단은 관악구 일대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 산타 복장을 한 봉사단원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한편, 주유키트, 월동용품, 학용품, 부식 등으로 구성된 난방용품을 포장하여 서울·경기지역 아동시설 80여 곳에 전달하고 저소득 결손가정 125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S-OIL, 청계산에서 “변화의 해” 결의



S-OIL은 지난 1월 12일 청계산에서 사미르 에이 투바이업 CEO을 비롯한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등반 행사를 갖고 2008년을 S-OIL “변화의 해”로 선언했다. 투바이업 CEO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사들이 고도화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거대한 변화의 시대로서 과거의 명성과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2008년을 S-OIL 변화의 해로 삼아 임직원 모두 변화의 대상이 되지 말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S-OIL, KLPGA 박보배 프로와 후원계약 체결



S-OIL이 국내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여자 골프선수를 후원하는 등 골프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S-OIL은 지난 1월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KLPGA 투어의 박보배(22)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S-OIL이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 박보배 선수는 2년간 참가하는 모든 골프 경기에 “S-OIL 로고”가 부착된 의상 및 용품을 사용하고, S-OIL의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에도 적극 참가할 예정이다.

S-OIL, T-Class & Oi 삼성카드 출시

S-OIL은 지난 1월21일 삼성카드와 제휴를 맺고 「S-OIL T-Class & Oi 삼성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OIL T-Class & Oi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S-OIL계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고객들에게 1 당 80원의 S-OIL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고객들은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로 주유결제 및 사은품 신청 등 S-OIL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삼성카드 세이브 서비스(포인트 선결제) 이용시 S-OIL 보너스 포인트로 세이브 이용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1.2%의 삼성카드포인트를 적립해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시 2~3개월 무이자할부 및 외식/놀이공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현대오일뱅크, 서해안 재난복구 성금 40억 기부



현대오일뱅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총 40억 원을 기부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지난 해 12월 26일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에 각각 10억 원을 전달했으며, 12월 28일에는 충청남도도를 방문해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900여 명이 2007년 한 해 동안 받은 임금 중 만원과 천원 미만의 자투리 적립금을 모은 1천700여 만원에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합친 3천370만 원을 충남 태안군 거주 피해 주민 돕기 성금으로 기부, 지역민들의 빠른 재기를 함께 응원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예인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태안반도를 찾아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며, 깨끗한 바다를 되찾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이번 전달된 성금과 임직원 자원봉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웃음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un to U' 비전 담은 홈페이지 새 단장



현대오일뱅크 대표 홈페이지(www.oilbank.co.kr)가 비전2012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새롭게 단장, 지난 해 12월 7일 오픈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현대오일뱅크가 2012년까지 국내 최고의 효율성을 갖춘 석유정제 및 마케팅 회사로 도약한다는 비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다부진 각오와 결의를 담았다. 특히 비전 2012와 혁신, 신뢰와 정직, 파트너십, 프로페셔널리즘의 4가지 핵심가치를 주제로 메인 화면을 구성,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다짐과 최고의 고객가치를 향한 약속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최신 웹 트렌드에 맞게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며 깔끔하고 세련되게 디자인했으며 웹 2.0 시대에 걸맞게 고객들이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구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성남기술지원센터 완공, 품질불만 제로화 선언



현대오일뱅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계열 주유소와 직거

래저 유통 제품을 72시간 내 신속하게 분석해 품질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석유제품 기술지원센터를 경기도 성남에 개소하고, 지난 해 12월 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가 이번에 완공한 '성남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첨단 경질유 분석장비 및 품질 점검장비를 도입하고 품질관리와 시료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과거 주유소나 거래처로부터 공급한 제품에 품질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약 10일이 걸렸던 것을 최대 3일(72시간) 이내로 줄여 보다 신속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

지역농가 5억원 쌀 수매... 지역 공동모금회에 기부



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인근 농민들이 재배한 5억 원 상당의 쌀 1만 가마를 수매, 전량을 지역 불우이웃에 기증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해 11월 15일 대산공장에서 지역 농민과 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햅쌀을 수매하고, 이를 충청남도에 기증하는 행사를 함께 가졌다.

현대오일뱅크가 수매한 햅쌀 1만 가마(1가마 40kg)는 충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이웃 사랑 돕기' 행사에 기증돼 충남지역 관내 독거노인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용제대리점 유통질서확립 결의 간담회 개최

현대오일뱅크는 투명한 용제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전국 용제 대리점 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대오일뱅크와 거래중인 10개의 용제 대리점 사장단 16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사장단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시중 불법 유사연료유 제조 판매 행위 사례 등을 공유하며, 투명한 용제를 유통하고 판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생산본부 박병규 상무, '자랑스런 충남인상' 수상

현대오일뱅크 생산본부 생산지원부부장 박병규 상무가 지난 해 12월 31일 충청남도로부터 외자유치분야 2007 자랑스런 충남인상을 수상했다.

박병규 상무는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으로 지역 내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등 충남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돈화문오일뱅크, 소방방재청서 안전관리자 표창 받아

현대오일뱅크 서울직영본부 돈화문오일뱅크의 문영호 사장이 지난 해 11월 9일, 서울 종로 소방서에서 열린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최우수 안전관리자 표창을 받았다. 돈화문오일뱅크는 위험 안전 관련 규정 준수와 행정 업무지원 등 평소 소방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높이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안전관리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주유소 내 저유탱크의 철저한 누유 점검, 고객차량 주유 중 엔진정지 등 위험시설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 년 간의 소방서 불시 점검에도 사소한 지적 없이 주유소 안전관리에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후문이다.